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1/3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양회에서 올해 중점 사업 발표

-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사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
- **(금년도 대내 중점사업)** △내수 확대. 소비 회복 및 확대와 생활서비스 소비 회복을 추진. 지방정부는 3.8조 위안(한화 약 712조 원)의 채권을 발행하여 '14차 5개년 계획'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 △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. 제조업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에너지, 광산자원 탐사 및 개발.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△국유기업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의 발전을 장려 △외자유치·시장진입·서비스업 개방 확대.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등 수준 높은 경제무역 협정과 대표적인 외자프로젝트 건설 △경제·금융 리스크 통제. 부동산 대기업의 부채비율 개선,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 △식량 생산을 보장하고 농업을 발전 △친환경·저탄소 전환 추진 △민생 보장. 주택 보장시스템 건설을 완비하여 신시민(新市民, 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), 청년 등의 주택문제를 해결, 의료자원 균형적인 분포를 추진하고 양로서비스를 보장
- **(대외개방 확대 및 경제무역 협력)** △수출입 분야는 수출환급, 신용보험,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고 수출환급 처리시간을 6일로 단축. 국경간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를 152개 신설하고 해외창고 건설을 확대. 수입박람회, 광저우교역회, 서비스무역교역회, 소비재박람회 등 대형 전시회를 적극 활용. 통관 편리화를 추진하여 수입, 수출 통관시간을 각각 67%, 92% 단축. 관세 수준을 9.8%에서 7.4%로 낮추고 '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'을 추진하며 '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'를 출범 △외자유치 분야는 '외국인 투자법' 실시조례를 출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최적화.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고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각각 51%, 72% 축소. 제조업 분야는 전면 개방하고 금융 등 서비스업의 개방 수준을 제고. 기존 설립한 21개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. 지역별 혁신적인 외자유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자유치와 프로젝트 매칭을 촉진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3-03/06/content_25968755.htm

2 中 광저우교역회(캔톤페어), 4월 15일부터 온·오프라인 동시개최

- 올해 제133회 광저우교역회(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)는 4기 전시관을 오픈하여 전시면적이 과거 119만 평방미터에서 150만 평방미터로 확대되었고 참가 예정인 업체는 3만 개사로 집계됨
- 이번 교역회는 산업자동화 및 스마트제조, 신에너지 및 커넥티드카, 영유아용품 등 3개 전시구역과 스마트 라이프, 실버경제, 검사키트와 방호용품 등 3개 전문구역을 신설하여 전시구역은 54개, 전문 전시구역은 159개로 증가함
- 올해 해외기업 대상으로 수입상품 전시구역을 전부 오픈했으며 독일, 스페인, 이탈리아 등 주요 참가국과 터키, 한국, 인도, 말레이시아 등 국가도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임. 한편 교역회 기간 주장(珠江)국제무역포럼, 무역이슈포럼 등 400여 건의 무역촉진 행사가 개최될 예정

자료원 : 경제참고보

http://www.jjckb.cn/2023-03/01/c_1310700800.htm

3 中, 100대 부동산 업체 2월 판매액 전월 대비 35.1% 증가

- 중즈연구원(中指研究院)에 따르면 1~2월 100대 부동산 업체의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4.8% 감소한 9,841억 위안(한화 약 187조원)으로 하락폭이 29.2%p 축소됨. 2월 판매액은 전월 대비 35.1%, 전년 동기대비 28.5% 증가했고 10대 부동산 업체 매출 회복세가 뚜렷함
- 1~2월 100대 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용지 구입비는 전년 동기대비 16.2% 감소한 1,207.6억 위안(약 23조원)이며, 전월 대비 하락폭이 13.2%p 축소함
-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용지 구입 상황을 보면 베이징시, 쑤저우, 항저우 등 1, 2선 도시에서 부동산 용지 구입 적극성이 회복되었고, 30여개 도시에서 첫 주택 대출 이자율을 4%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3월 부동산 판매액도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

자료원 : 증권일보

http://www.ce.cn/cysc/fdc/fc/202303/02/t20230302_38420561.shtml

4 中,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(CIIE) 바이어 수입 의향 발표

- 제6회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(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, CIIE) 관련 국가위생건강위원회·상하이시·저장성·선전시 대표단은 올해 수입 예정인 상품을 공개하였음
- 상기 대표단의 수입 예정인 상품은 100여종이며 수술용 로봇, 신에너지차 제조장비, 반도체 디바이스 등 하이테크 기술제품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, 명품백, 아웃도어용품 등도 포함됨
- 수입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향후 바이어 수요를 지속적으로 취합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. 지난 1~5회 수입박람회 기간 의향 거래액은 총 3,400억 달러에 달했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3-03/02/content_25967986.htm

5 中, 2022년 집적회로 수출입 모두 감소세

- 2022년 중국의 집적회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9.8% 감소한 3,242억 개이며, 집적회로 수입량은 전년 대비 15.3% 감소한 5,384억 개, 수출량은 12% 감소한 2,734억 개임. 최근 5년간 수입량은 총 2조 5,801억 개, 수출량은 1조 2,796억 개로 집계됨
- 한편 2022년 집적회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0.9% 감소한 2조 7,663억 위안(한화 약 522조원), 수출액은 전년 대비 3.5% 증가한 1조 254억 위안(약 193조원)임
- 주요 수출입 품목(CPU, 컨트롤러, 메모리, 앰프, 기타 집적회로와 집적회로 부품)을 보면 CPU와 컨트롤러 수입액이 전년 대비 2.7% 증가한 2,051억 달러로 전체의 49.2%를 차지했고 메모리 수입액은 7.1% 감소한 1,013억 달러로 전체의 24.3%로 집계됨. CPU와 컨트롤러 무역적자는 1,528억 달러, 메모리 무역적자는 310억 달러로 메모리는 국산화 수준이 제고되었으나 CPU와 컨트롤러는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

자료원 : 해관총서

<https://cj.sina.com.cn/articles/view/1960136440/74d54ef8001019hoi>

6 中 외자기업(파나소닉), 수소연료전지 시장 진출

- 오는 4월 장쑤성 우시(无锡)시 소재 파나소닉에너지(우시)유한회사가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5kW 수소연료전지가 중국시장에서 출시될 예정

- 업계에서는 외자기업의 중국내 수소에너지 산업 진출은 수소에너지 산업의 기술 진보와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함
- 2022년 3월 중국 정부는 '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(2021~2035년)'을 발표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정책을 출범. 현재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은 핵심기술 면에서 해외와 차이가 존재하며, 향후 핵심 재료의 품질과 설비 정밀도 수준 제고를 추구할 예정

자료원 : 증권일보

<http://www.zqrb.cn/finance/hangyedongtai/2023-02-28/A1677515806295.html>

7 中 공신부,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

-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△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 △우위산업 공고화 및 발전 △신산업 육성 △미래산업 선점 등 4개 방면에서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음
- (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) 2022년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.7%로 제조업 규모가 13년 연속 글로벌 1위를 달성했으며, 산업구조 고도화로 첨단기술 제조업, 장비제조업이 전체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의 15.5%, 31.8%를 차지함. 향후 기업의 기술개조와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생산공정 현대화와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
 - * 첨단기술 제조업은 의약품 제조업, 항공·우주설비 제조업, 전자통신설비 제조업, 컴퓨터 및 사무용 설비 제조업, 의료기기와 설비 제조업, 정보산업용 화학품 제조업 등 포함
- (비교우위산업 공고화 발전) 고속철도, 선박, 전력장비, 공정기계, 통신설비 등 분야는 우위를 확보하고 개인용 컴퓨터, 휴대폰, 가전제품, 태양전지판 등의 생산량은 글로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향후 공작기계, 궤도교통, 광전자 재료, 에너지·전력장비 등 중점 분야에 주목할 예정
- (신산업 육성) 5G, 인공지능, 바이오제조, 산업인터넷, 커넥티드카, 친환경·저탄소 등 분야 관련 새로운 응용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을 확대하며 '로봇+' 응용 계획을 실시하여 사물인터넷 산업의 규모와 집약화 발전을 도모
- (미래산업 선점) 휴머노이드 로봇, 메타버스, 양자과학기술, 6G기술 등을 연구개발
- 제조업 육성 관련 대형 여객기, 항공엔진, 가스터빈, 전력장비, 선박 및 해양공정장비, 공작기계 등 기술장비 제조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. 중국은 이미 209개의 스마트 공장을 건설했으며, 공장 개조 이후 연구개발 주기가 20.7% 단축되고 생산효율이 34.8% 제고되었으며 제품 불량률이 27.4% 하락하고 탄소배출이 21.2% 감소되었음

자료원 : 경제참고보

http://www.jjckb.cn/2023-03/02/c_1310700967.htm

8 신화망이 본 중국경제 10대 발전 전망

- 신화망은 중국의 시장규모, 제조업 발전, 대형 프로젝트 건설 등 10개 방면으로부터 중국 경제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양호한 발전을 전망함
- **(초대형 시장 형성으로 거대 잠재력 보유)** 중국은 2030년까지 상품 수입액이 22조 달러에 도달할 전망.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소비재 판매액이 44조 위안(한화 약 8,316조원)을 기록하며 글로벌 2대 소비시장, 글로벌 최대 온라인 소매시장 지위를 유지했고 연속 14년간 글로벌 2대 수입시장으로 부상
- **(제조대국으로 질적 성장기반 공고화)**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(UN) 산업 분류 중 모든 공업 부문을 보유한 국가로 220여종의 공업제품 생산량이 세계 1위임. 2022년 공업 부가가치가 40조 위안(약 7,546조원)으로 GDP의 33.2%를 차지했고, 2022년 집적회로 판매액은 1조 위안(약 189조원)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률이 19%에 달함
- **(대형 프로젝트 건설로 현대화 국가 건설 토대 마련)** 강주아오(港珠澳) 대교가 개통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소인 바이어탄(白鹤滩) 수력발전소를 가동. 글로벌 최대 규모의 충전시설 네트워크 구축했고 고속도로 17.7만 킬로미터, 고속철도 4.2만 킬로미터 건설함. 글로벌 물동량 10대 항구 중 7개 보유하고 민용공항 54개 건설. 또한 글로벌 최대 광섬유 네트워크와 5G 기지국 230만 개 건설하였음
- **(1억 명 규모의 사업자 육성으로 경제성장 지원)** 2023년 1월 기준 중국내 사업자는 1.7억 명, 이 중 자영업자가 1억 1,400만 명임. 2022년 연구개발 투자는 3조 위안(약 566조원)이며,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75%를 차지. 발명특허 보유기업은 35.5만 개사이고 특허수는 총 232.4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1.8% 증가함
- **(인재로 육성 현대화 국가 건설 지원)** 생산가능인구가 8.8억 명으로 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의 합을 상회함. 인재는 2.2억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재대국이자 연구개발 종사자가 세계 1위임
- **(과학기술 자립으로 강대국 경쟁에서 우위 확보)** 2022년 혁신지수가 글로벌 11위로 상승했고 10년 연속 상승세. 21개 구역이 글로벌 과학기술 클러스터 100강에 진입. 2022년 기초 분야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.3%로 4년 연속 6% 이상을 유지함

- **(지역 간 협동 발전으로 성장 도모)** 징진지(京津冀, 베이징·허베이·톈진) 지역 GDP가 10조 위안 (약 1,886조원), 웨강아오(粵港澳, 광둥·홍콩·마카오) 대만구 9개 도시 GDP가 10조 위안(약 1,886조원), 장강삼각주(상하이·장쑤·저장·안후이) GDP가 29조 위안(약 5,470조원) 돌파하여 3개 도시군의 GDP가 전국 GDP의 40%를 초과하여 경제발전 및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부상
- **(새로운 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)** 최근 10년간 연평균 3%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로 6.6%의 GDP 증가율을 견인하였고 글로벌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 및 청정발전 시스템을 구축
- **(새로운 국면 성장 주도권 확보)** 2022년 말까지 C919 주문량이 1,035대에 달했고, 2023년 1월 외자이용액이 전년 동기대비 14.5% 증가한 1,277억 위안(약 24조원)임. 1월 25일 유엔(UN)은 2023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1.9% 하락을 예상함과 동시에 중국은 4.8% 성장을 전망함. 1월 30일 IMF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5.2%로 상향 조정하였음
- **(개혁 심화로 사업 효율성 제고)**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시에서 소집된 중국공산당 20기 2중 전회에서 '당과 국가기관의 개혁방안'을 심의 통과하였음. 올 들어 상하이, 허베이, 저장 등지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제기했고 '주식 발행 등록제' 실시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음

자료원 : 신화망

http://www.ce.cn/xwzx/gnsz/szyw/202303/02/t20230302_38420517.shtml